**<시놉시스>**

종창이 태어나기 전,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혼자 종창을 돌보던 엄마 마저 종창의 어린 나이에 죽음을 맞이한다. 얼굴도 보지 못한 아빠는 엄마에게 들은 이야기 가 전부인 종창, 하지만 혼자가 된지 오래 되었을까 아빠는 이미 기억도 나지 않고 엄마마저 흐릿해진다. 거리가 시끄러운 1980년 광주, 종창은 자신에게 피해만 없으면 된다며 집으로 가지만 시끄러운 거리를 피해 좁은 골목으로 들어선다. 종창은 군인에게 죽어가는 시민을 보게 되고 군인과 눈이 마주치자 쫓아오는 군인을 피해 도망간다. 이상한 터널 앞에 선 종창은 군인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터널 안으로 도망가지만 터널을 통과한 종창의 앞엔 낯선 거리가 나타났다. 종창은 낯선 거리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고 명길을 만나게 된다. 명길에게 미래에서 왔다고 설명하지만 종창의 말을 못 믿는 명길과 실랑이를 끝에 잠시 같이 살게 된다. 종창과 명길은 어느새 서로가 편해졌지만 명길이 아끼는 옆집 고등학생이 실종 되며 명길과 종창의 사이는 떨어지게 된다. 몇 일 후, 명길은 옆집 고등학생의 죽음을 알게 되고 시위를 나가게 되지만 말리는 종창을 뿌리치며 결국 시위를 나간다. 명길이 없는 집안, 종창은 명길의 편지를 발견하며 명길이 자신의 아빠라는 것을 알게 된다. 종창은 명길을 찾으러 나서지만 명길 앞에 섰을 때는 명길에게 차마 자신이 아들이라며 말하지 못하고 결국 설득도 하지 못한 채 명길의 죽음을 막지 못하고 다시 자신의 시대로 돌아온다. 종창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명길이 남긴 편지를 보며 어릴 적 상자를 열어본다.

상자 속에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과 함께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며 관심마저 없어 진다. 종창은 자신이 꼭 그 시대에서 아버지와 그 사람들을 만났어야만 기억했다는 것에 후회하며 눈물을 흘린다. 종창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87년 항쟁이 일어날 때, 누군가의 기억 속에 머물길 바라며 세상이 바뀌는 것에 노력하려 시위에 나선다.